

친교로 하나 되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대림 제4주일 2023. 12. 24. (나해) 제2407호





5대리구 석전성당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주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34-7 **문의** | 054)974-1966 **홈페이지** | http://seokjeon.org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에서 관할하는 왜관 제2성당으로 왜관성당에서 분가하여 1979년 5월 2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성 요셉을 주보성 인으로 모시고 있으며 지난 2023년 9월 9일에 새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제 1 독 서 2사무 7,1-5.8 C-12.14 7.16

화 답 송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2 독 서 로마 16,25-2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1,26-38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주일의 말씀

받아들임



병원사목부 차장 | 정진섭 도미니코 신부

제가 만나고 있는 환우분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병명을 들었을 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거부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복음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 집안의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처녀인데 아기를 임신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거부하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가브리엘 천사의 설득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답하며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선택과 결정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에서, 나에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일어난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거부하고 부정할 수도 있고, 우울해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함께 사는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 내디디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환우분들은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시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용서를 청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표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 앞에 펼쳐질 새로운 삶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도 거부하고 부정하고 싶은 상황들 앞에서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새롭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맞이하며 인내하는 과정에서 나의 삶들은 변화되고 바뀌어 갈 것입니다. 墨

*



33톤, 우리가 함께 드는 마음의 무게

"쌓여있는 쓰레기로 집이 곧 무너질 것만 같아요" 한 이웃의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받고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각종 쓰레기로 인해 대문조차 열리지 않아 담벼락에 의자를 두고 집안으로 넘어 갈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 가득 찬 쓰레기로 인해 쓰레기 위를 걸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 은 가득 찬 쓰레기로 바닥은 보이지 않았고 쓰레기 를 위를 걸어 다녀야 했으며, 어르신은 누울

> 공간도 없이 앉아서 잠을 청하고 계셨 습니다.

쌓여있는 물건과 각종 쓰레기로 인 해 곧 무너질 것 같은 주택의 어딘지

도 모를 한 켠에 서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 중고 의류 판매 관련 일은 하시다가 뜻대로 잘되지 않아, 아까워진 물품들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고, 점점 쌓여진 쓰레기로 인해 가족과 주위 사람들마저 떠나갔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르신 곁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이웃의 설득으로 어르신께서는 마음가득 채우고 있던 물건들을 버리고 사회로 한 걸음을 내딛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결심에함께하기 위해 지역사회 모두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대구카리타스에서 운영하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간을 확보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 허인 다니엘

해 주셨고, 여러 자원봉사단체와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를 비워내고 폐기물을 정리하였습니다. 또 지역사회 내 기업체에서는 폐기물 정리 후 주택 내부 공사를 지원해 주셨고, 당일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이웃들은 지지와 격려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진행된 폐기물정리는 약 8시간에 걸쳐 33톤이나 되는 쓰레기와물품을 모두 비워냈고, 33톤만큼 큰 어르신의 마음의 집도 함께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르신은 주택을 정리하기까지 수년간의 결심이 필요하였지만, 이웃들의 사랑 어린 도움으로 변화된 집을 보시며 그동안 쌓여온 마음의 집과 아픔을 눈물로 씻어내셨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주택은 어떤 이에게는 눈 찌푸림의 대상이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저장 강박이라는 치료의 대상이며 저희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작은 관심의 시작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작은 애정과 관심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안이 되며, 사람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 보다 큰 사회적 사랑의 실천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될 수있도록 오늘도 우리 대구카리타스인들은

늘 살펴보고 실천하는 마음을 다집니다. 🜉



《밀알회》는 대구대교구 공식 사회복지 후원회로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노숙인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위한 복지사업과 교구 소속 10개 법인의 100여 개 시설과 본당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자 가입 문의 : 422-3411

일쑤~!

국악인 | 최호곤 아우구스티노

지~잉, 따당따당, 쿵, 다다닥~ 예전에는 명절이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면 종종 동네 어귀나 시장 마당에서 풍물패들의 소리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었는데 지금은 시골촌 동네에서조차 보기가 힘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하는 공연을 '버스킹'이라고 하던데 아마 사물놀이가 원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징과 꽹과리, 북과 장구, 이름만 들어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나요? 사물놀이에는 악기 숫자 말고도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나리, 삼도설장구, 판굿, 삼도농악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할 줄 알아야 사물놀이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째 사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풍물단에서 활동하던 당시 회원 중에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모두가 성실하고 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성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다니던 성당에서도 풍물패가 만들어졌고 컨테이너로 만든 연습실에서 매주 연습을 했습니다. 크든 작든 공연 직전에는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를 올린 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덕분이었는지 처음으로 참가한 마산풍물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성, 영천, 언양풍물



대회 등에도 나가 마음껏 기량을 뽐내고 입상을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공연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당에서도 기쁜 날이면 먼저 풍물패의 사물놀이로 시작하고 함께 어울려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공연 횟수도 줄어들고 하고자 하는 신자도, 성당의 관심도 사라져 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코로나19라는 병마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모든 것이 중단되었고 결국 팀마저 해체가 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8월, 공소에 내려오신 원로 신부님께서 "90을 바라보는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70도 안 된 사람

이 나이 먹었다고 그만하려고 하다니."라는 말씀이 자극제가 되어 4대리구 난타 공연팀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5~60대 분들이 입문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식 공연도 할계획입니다.

징과 꽹과리는 하늘의 소리, 북과 장구는 땅의 소리입니다. 하늘과 땅이 어우러진 소리 안에서 항상, 즉시, 기쁘게 친교를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삶이요, 자녀 된 삶의 아닐까 생각됩니다. 점점 잊히고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풍물이 잘 보존되고 이를 통해 하느님 안에서 신명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국악예술인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봉사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聖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5년**

化剂 可对外 化对正 付好 寿付

5월 3일 월요일

한국인 신부들의 피정이 시작되었고, 나는 선교사들의 피정 때와 마찬가지로 피정 강론을 하게 된다. 성체 강복을 제외한 모든 의식을 주교좌성당에서 하고 있다.

5월 4일 화요일

김 베드로(金明濟) 신부가 오늘 아침 휴식시간 동안에 명도회로 통하는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자전 거가 넘어져서 약 2미터의 높이에서 머리를 부딪치면서 마당으로 떨어졌다. 그를 의사에게 데려가야 했고, 그는 피정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5월 8일 토요일

나와 신학교의 두 신부가 내일의 축성을 위해 대재를 지켰다. 저녁때 피정실에서 성 푸덴시오와 성 만수에 토 축일의 조과(早課)를 바쳤는데, 그들의 성해를 제대 안에 모시게 될 것이다.

5월 9일 일요일

신학교 성당의 축성 의식은 8시에 시작하여 12시 50분에 끝났다. 성가를 느리게 불렀고, 제대를 덮는 일로 평소보다 더 오래 걸렸다. 주교미사는 12시에 시작되었다. 첫 기도 후 2시 30분의 성체강복에서 나는 종결 강론을 했고, 서열을 따라 신부들과 신학생의 성직자 선서 갱신을 받았다. 주 바오로(朱在用)는 소품자(小品者)이다.

5월 10일 월요일

나가사키 교구의 신학교 교수인 드루에 신부가 텐진(天津)에서 퇴역이 되어 그의 교구로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 들렀다.

5월 15일 토요일

서울의 강론대가 완성되어 보니파시오 대원장이 그 사진을 보내주었다. 며칠 동안 서울에 머무르면서도 분 도회 신부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던 샤르즈뵈프 신부의 태도가 보니파시오 대원장을 아주 슬프게 했다.

출처: 가톨릭신문사 창간 60주년 기념자료집 『드망즈 주교 일기』(1987)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입당송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 **제1독서**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 화답송

-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 제2독서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 습니다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워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 알렐루야.
- ▲ 복음 [루카 2,1-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

<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

▲ **영성체송**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주님 성탄 대축일

▲ 입당송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 제1독서 [이사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 화답송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 제2독서 [히브 1,1-6]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알렐루야.
- ▲ 복음 [요한 1,1-18]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
- ▲ 영성체송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미사 안내 | | | |
|--------------------------------|-----------------------|----------------|-------------------------|
| 구미지역 12월 25일(월) 밀알회 월례미사 없습니다. | |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12월 27일(수) 10:00 죽도성당 |
|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12월 26일(화) 14:00 신암성당 | 인국의당선교회 우권회 미자 | 12월 27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
| | 12월 26일(화) 19:30 다사성당 | 공소후원회 월례미사 | 12월 30일(토) 11:00 남산성당 |

수도회 | 피정 🔻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하느님 자비의 기도 월피정

일시: 1,2(화) 13:00~16:00

내용: 성시간, 유해친구, 강의, 미사

장소: 관덕정순교기념관

문의: 팔로티회, (010)3824-0333

은사, 치유 피정 1박 2일(무료)

일시: 매월 첫금 18:00~토 15:00 파견미사

강사: 김완식 요셉 외 유명강사

진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장소: 초정성령회관

문의: (043)213-9103 / (010)2321-9426

2024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일시: 2024.1.19(금)~21(일)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대상: 고1~35세 미만 남성

접수 마감: 12.31(일) 문의: (010)6221-3520

일반 알림 | 기타 |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모집

원서접수: ~2024.2.16(금)까지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공부 문의: (02)745-8339 / ci,catholic.ac.kr

가톨릭한중친선협회 회원모집

매월 셋째 토요일 월례회: 장소 신학교 맹자강의: 15:00~16:30

월례미사(중국어독서, 복음) 17:00~18:00

1,2,4주(토) 중국어성경: 15:00~16:30

문의: (010)2758-0266

예수회센터 1월 개강 동영상 강좌

요한 신부와 함께 읽는 요한복음: 김민 신부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

최지원 수녀

문의: http://center.jesuits.kr/

요양원 '바오로둥지 너싱홈' 어르신 모집

기쁨으로 섬겨드려라~ 시설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을 모시고 수녀님들과 함께 행복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문의: (054)972-5901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http://cord.fatima.or.kr 문의: 959-8883 / 940-7126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장소: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12월 성탄의 기쁨이 있는 달

생래적 희망 - 겨울철 적정실내온도(21℃) 유지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 농어민사목부 제공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산정보리티시 건너편 **옥리브영 3**년 Tel. 053 552 2525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잎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대표원장 이세원(루까) 053-571-0075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크림·로션·스킨·샴푸·금잔크림·세안비누 툿찡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502-700-1140 010-5117-1160

스타시, 또 엘시 가장 개본입니다! Speech.Kim 리더신&발표력&지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프라자 옆) T. 010-5538-3809 NAVER △피치리 → 図 김결이(사비나)

《GB 포장이사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무료전화 080-053-1000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최병선 요한 신부
 1987년 12월 27일

교구 | 대리구 알림

14차 약혼자 주말

기간: 2.23(금 19:00)~25(일) 장소: 베네딕도영성관(사수동)

대상: 예비부부 및 혼인 1년차 이내 마감: 2.6(화) / 신청비: 2인 30만원

문의: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된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지영(안젤라)

문의: 교구법원, 253-9550

동명성당 성령 세미나

기간: 2024.2.17~18 / 24~25

참가비: 5만원

입금계좌: 신협 137-007-213234 신청 및 문의: (010)9886-5596 (성령기도회장: 배선아 벨라뎃다)

계산성당 연도실 조리사 채용

모집부문: 조리사 1명, 주방보조 1명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 세부사항 면담 후 조정 서류접수 후 개별통보 마감: 12,31(일) / 문의: 254-2046

성동성당 사무원 모집(유경험자)

문의: (054)776-1840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

무학연수원(신축) 성물 기증

신축중인 무학연수원 성전에 성물이 필요합니다. 많은 봉헌 부탁드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390921-9,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김동진 신부, (010)3127-8188

가톨릭스카우트 대원 모집

모집대상: 초3~중1(24년도 기준) 모집기간: 2.29목)까지 문의: 김동진 신부, (010)3127-8188

바뇌의 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12.28(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대안성당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가야금, 정리수납전문가, 서양화, 연필초상화, 프랑스자수, 칼림바, 우쿨렐레, 캘리그라피, 오카리나, 성가반주오르간, 사군자문인화, 미술심리상담사 / 신청: 254-6115

2024 전기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12,18(월)~29(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1,3(일반) 850-3508(교육) / 660-5251~4(특수) https://www.cu.ac.kr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취미·교양과정 / 자격증과정 음악원(1:1레슨) / 학점은행제 장소: 달서구 감삼동

문의: 660-5554~6

홈페이지: https://conedu.cu.ac.kr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 과정 신입생 모집

접수: 12.18~29 / 월요일 야간 강의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전원 50%(수도자 100%) 장학금 문의: 660-5251~4 / (010)6563-040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일반검진,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성 로베르토 웰-엔딩 연구소 강좌 안내

기간: 1.6.~3.3(토) 10:00~12:00(8회) 장소: 계산문화관 3층 본 연구소 내용: 삶과 철학; 고전 깊이 읽기 대상: 15~18세 청소년 / 강사: 박경주 박사 문의: (010)7439-5454

४ रिक्रेग ठुष्ठा अ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원장 윤용현 바오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3호선 어린이회관역) T. 053)766-2454 / 2455

또는 도앤김&내과

혈액투석 주·야간투석 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림(안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주차장완비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신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5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의·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mark>ৣৣ৾ 코리아알트만</mark> ^{40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동고동락 결혼정보

1:1 밀착관리 매칭 시스템 운영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임 영 희 (소피아) 교대역 4번 출구 바로 앞 010-4535-0100

\mathbf{W} 위드 국제결혼

www 위드결혼 kr

베트남 | 캄보디아

대표 강 정 희 젤뚜르다 010-7428-1566 내당역 3번 출구 성안오피스텔

€€ 현대S라이프

VIP **장례상**담 (회사장, 사회장 등)

상담전화 1566-1678

청추·관절및뇌·신경클리닉 이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두통,어지럼증,손발저림,진전,요통 좌골신경통,목-허리 디스크,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류마티스,오십견,근 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